

## 언론의 특종 경쟁에 멎드는 원자력

송 명 재

한전 원자력환경기술원 연구개발실장

**요**즈음 세상을 살아가자면 신문과 방송을 멀리할래야 할 수가 없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이요,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도 TV에 한번쯤은 눈을 돌려야 급변하는 세상살이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의 신문이 등장한 것은 근대 국가 형성 시기이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의 원조는 BC 5세기 무렵 로마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직접 쓰여진 「뉴스레터」라고 한다. 후에 로마는 정부의 발표 사항을 일보의 형식으로 게시하는 게시판을 로마 광장에 설치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참 후인 15세기 중반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자 인쇄물에 의한 뉴스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최초의 인쇄 신문인 독일의 《플루크블라트》라는 신문이 발간되었다. 이 신문은 그림까지 곁들인 한 장짜리 신문이었다.

### 언론의 막중한 사회적 책임

오늘날 신문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또 분량도 많으며 역할도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준을 훨씬 넘어 서고 있다. 언론 기관으로서 신문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이 너무도 막중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20세기 초에 미국 신문들이 지나치게 상업성에 치중하자 뜻있는 신문인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신문편집인협회를 결성하고 신문 윤리 강령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신문은 책임·자유·독립성·진실·정직·공정성과 품위를 지킬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령의 준수는 그리 쉽지만은 않아서 신문의 공정성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특히 신문사를 운영하는 기업의 상업성은 더욱더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있게 되었다. 최근에 미국의〈뉴욕 타임즈〉 편집국장을 지낸 클린턴 데니얼이 “신문은 모름지기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하고 또 공중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자성할만큼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다.

### 특종과 오보

언론의 상업성과 관련된 특종 경쟁은 정말 처절할 정도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총선시민연대가 국회 의원 공천 반대 2차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명단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오전 10시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 명단은 공식 발표 3시간 전에 모 방송 아침 7시 뉴스에 먼저 보도되었다.

총선시민연대측에서는 명단의 사전 유출은 불가능한 일이라 주장하고 있고 그 방송사에서는 명단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아 한동안 다른 언론사들의 기자들간에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 와중에서 한 일간지 기자는 명단 발표 전날 자신이 총선 연대회의 장소에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가 명단의 일

부를 입수하였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문에 게재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특종을 위한 노력이 가히 007 작전을 방불케 함을 알 수 있다.

언론사들의 특종 경쟁은 거의 항상 시간적으로 초읽기에 몰리면서 이루어진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가 가끔은 문제시되기도 한다. 특히 보도 내용이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에는 더욱 더 그렇다.

지난 1월 말일에 미국의 <AP네트워크> 뉴스에서 어떤 연구의 예비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는 곧 국내의 K일보·C일보에 중계 보도되었다.

같은 내용을 한 신문은 '핵무기 공장 방사능 노출 암 발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실었고, 다른 신문은 '미 원전 근로자 수천명 방사능 노출 공식 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게재하였다. 후자는 아마도 우리 나라에 이미 1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이어서 우리도 미국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보도했지 않았나 싶다.

C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내에 있는 14개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60만명의 근로자 중 수천명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생긴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에너지 장관이 인정했다고 한다.

만약 이같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나라에도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이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그간 강조해 왔는데 우리보다 더 선진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의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원전 근로자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니 말이다.

### 멍드는 원자력

이 보도로 인해 국내 원자력 산업 관계자들이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 여기저기에서 문의 전화가 쇠



도했고, 국내 원전 작업자들이 안전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국내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C일보의 보도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에 바빴다. K일보의 보도 제목과 유사한 점에 착안해서 C일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다.

결국 미국의 보도 출처까지 밝혀본 바에 따르면 C일보의 기자가 과거에 있었던 미국 내 핵무기 근로자에 대한 보도를 잘못 해석해 현재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처럼 오해를 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근무자나 우리 나라의 원전 근로자들에게 방사선 암 증세로 단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C일보 보도는 오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보로 인해서 언론은 또 다시 국민들의 가슴 한 구석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 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감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점점 두텁게 쌓여간다.

언론사들의 특종 경쟁에 원자력이 멍들어가고 우리의 경제가 좀 먹고 있으며 우리 주변 환경 문제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